

2017 국가직 영어 시험 해설

2017년 국가직 영어 시험은 2016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된다. 어휘와 문법 그리고 생활 영어는 보통 수준으로 출제했지만 독해는 호흡도 길고 단락의 길이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의 수준도 높았다. 그럼 각 문제별로 답의 근거를 간략하게 점검해본다.

1번. 어휘 문제. detest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는 의미의 동의어 ②abhor가 답

2번. 어휘 문제. uncanny 이상한 동의어① odd가 답

3번. 생활 영어 문제. 손님과 점원 사이의 대화이다. 옷을 샀는데 약간 크다고 했고 빈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럼 빈칸 내용의 답은 “더 작은 사이즈는 없다”는 것 ① 이 된다.

4번. 생활 영어 문제. 가정용 혈압측정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할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대화의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빈 칸 후에 대답이 “그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움직이거나 말하지 말아야 해요.”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면 빈칸은 - “다음엔 뭘 하죠?” ②가 답

5번. 문법 문제. ②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that가 아닌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야한다. that를 써서 in that가 되면 ‘~라는 면에서’라는 엉뚱한 뜻이 된다.

③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시제 일치에서 예외로 늘 과거 시제사용.

④ make

think + it + 형용사 + to부정사

find

여기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scientists를 쓰려고 한다면 “for 의미상 주어”를 삽입 즉,

make

think + it + 형용사 + for의미상 주어 to부정사

find

6번. 문법 문제. ② Hardly did she enter the house when someone turned on the light. 가 틀린 문장.

‘hardly/scarcely + had + 주어 + p.p. + when/before 주어 + 과거동사’의 패턴의 문장. when 앞 절(~하자마자)이 when 뒷 절(~하다)보다 빠른 시제이므로 “did she enter” → “had she entered”로 고쳐야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

7번. 빈칸 추론 문제이다. 첫 문장을 잘 보라. 답이 보인다. “왜 가난이라는 경계선 근처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더 높은가?” “즉,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럼 다음 빈칸의 내용은 “우리 자신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요구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개입하게 만든다.”는 ③이 답. 나머지 선택지 ① 덜 관련되도록 ② 덜

몰입하도록 ④ 더 무관심하도록 이 세 가지는 결국 다 같은 의미가 되므로 답이 될 수 없다.

8번. 빈칸 추론 문제이다. 첫 문장을 잘 보라. 빈칸 답의 근거가 보인다.

“상하이의 소레일 백화점은 현대 중국 소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가진 것으로 보일 것이다.” – 이 첫 문장에서 “백화점”, “성공”, “요인” 등의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 그럼 빈칸 바로 앞 문장을 보자. “그래서, 시간과 돈을 쓰는 다른 방식들의 소비자들이 이 엄청난 공간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면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창의력! 빈칸에는 첫 문장에서 주어진 키워드 “백화점” “성공” “요인”으로 연결된 “창의력”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① 명품 브랜드들이 소레일 백화점에서 번창하고 있다.

② 소레일 백화점은 대담한 움직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③ 온라인 고객 기반을 증기시키는 것이 마지막 희망일 것이다.

이 세 선택지에는 “창의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5층짜리 용 모양의 미끄럼틀이라면 창의력의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은 ④ 5층짜리 용 미끄럼틀이 시작하기에 나쁜 장소는 아닐 것이다.

9번. 빈칸 추론 문제이다. 역시 첫 문장을 잘 보자. “미래의 발전에 관한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고안해 내는 일은 쉽고, 그 각각은 표면상으로 보면 다 똑같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주제인 어려운 과업은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아는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단락의 포인트를 알 수 있다. 어려운 그 일, 그것을 해내라는 것이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찾아내라! 즉, 답은 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는 것

10번. 내용 일치 문제이다. 첫 문장을 잘 보면 “혀의 맛을 느끼는 돌기(taste bud)”가 키워드로 제시되고 다음 문장부터 나이가 들면 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는 ② 미뢰의 대체물(재생산된 미뢰)은 나이와 함께 둔화되지 않는다.

③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욱 민감한 미각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있을 것이다. 답은 글의 초반에 제시되는 내용, 즉 “나이가 들면 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과 연관되는 ③이 된다.

11번. 어휘 문제. put up with 참다, 견디다 답은 ③ tolerate 참다

12번. 문맥에 맞지 않는 구동사를 찾는 문제. ④ I can't go out because I have to take after my baby sister. “동생을 다루아야하기 때문에” 라는 이상한 의미가 되므로 take after를 “돌봐야하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되도록 look after로 바꾸는 것이 맞다.

13번. 글의 제목. 첫 문장을 잘 보자. “드라마는 행동이다. 드라마는 존재이다. 드라마는 그렇게 평범한 것이다.”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은 ② 우리의 일상 삶에서의 드라마

14번. 글의 요지. 첫 문장을 잘 보라. “정부가 세계 경제의 3대 요소인 무역, 정보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막아서 세계화의 목을 조르려고 하면, 도대체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이 글은 처음부터 세계화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답은 ③ 세계화는 개인의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유익하다

15번. 영작 문제.

④ 내가 그때 그 계획을 포기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 Had I given up the project at that time, I should have achieved such a splendid result. 이 주어진 ④번 문장의 해석은 “훌륭한 성과를 얻었어야 했는데~”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답은 ④ 그렇다면 주어진 우리말에 맞는 문장은 I couldn't have achieved ~

16번. 영작 문제.

④ 그는 문자 메시지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 He was so distracted by a text message to know that he was going over the speed limit. 여기 so와 to know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so가 나오려면 that S + V구문이 나와야하고

뒤에 to know처럼 to부정사가 나오려면 앞에 too distracted로 too~ 구문이 나와야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so대신 too를 쓰는 것이 맞다. 즉, He was too distracted by a text message to know that he was going over the speed limit.

17번. 빈칸 추론. 역시 첫 문장을 잘 보자. 눈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양은 귀와 대조되어서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눈과 귀의 정보 수집 양의 대조! 대조다. 그러므로 첫 번째 빈칸은 비교 대조하는 ③ ④ comparing 이 답이 되고 두 번째 빈칸은 ③ 정보를 줄이는 ④ 끌어 모으는 중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니 답은 ④

18번.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 역시 첫 문장을 잘 읽고 단락 전체 흐름과 키워드를 잡아야한다. “최근에 들어 아동 도서 상이 대단히 많이 늘었다.” 핵심 키워드는 Children's book awards 아동 도서 상 그림 각 번호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면

① 이 상들은 특정한 장르의 책에 주어지거나 단순히 일정 기간 안에 출간된 모든 아동도서 중 최고의 도서에 주어질 수 있다. - 아동 도서 상에 대한 이야기

② 대부분의 아동도서상은 어른들에 의해 선택된다. 그러나 현재는 점점 증가하는 어린이들이 선정한 도서상이 존재한다. - 아동 도서 상에 대한 이야기

③ 출판 산업에 대한 뛰어난 기여에 대한 한 시상식이 보류되었다. - 시상식 보류, 어색하다. 답이다.

19번. 주어진 문장 삽입 위치 파악.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삽입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주목하자. 주어진 문장 앞부분 “This inequality 이런 불공평”을 보고 이 문장 앞에는 불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③에는 사냥을 하면서 수고한 사람이 가장 나쁜 부분을 갖게 되는 불공평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문장에는 결국 공평해진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답은 ③이다.

20번. 글의 순서 파악.

(A) But he also believed that creativity is rarely a solitary process

또한 믿었다, 그럼 앞에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한다.

(B) Despite his theoretical difference from the mainstream viewpoint

그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에 차이점이 나와야 한다.

(C) His most important theatrical tool

그의 가장 중요한 연극적 도구, 앞에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alien - 다른' 에 주목해야한다. 그럼 (B)의 'difference - 차이점'을 보고 (B)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의 후반에 He believed that 부분에 주목하면 (A) he also believed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자연히 (B) - (A) - (C)로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17 국가직 영어 문제 해법을 살펴보았다. 각 문제별로 해법을 제시한 것처럼 2017년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은 독해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아무리 독해가 어렵다고 해도 첫 문장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글쓰기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설령 긴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어려운 단어나 숙어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 특히 기본 어휘를 잘 학습해두고 평소 추론하면서 글 읽기를 연습해 두었다면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기억하고 영어 공부에 임하기를 바란다. 모두 확신 속에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분투하여 합격을 성취하기 바란다.

전반적인 난이도로 보면 '중상' 또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6년 국가직 시험이 평이한 수준으로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쉬운 지문에 대한 대비만 하고 갔다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점과 독해 지문 속의 어휘에서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국가직공무원시험은 변별력 문제로 문법이나 어휘보다는 독해로 출제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10개의 독해 문제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빈칸 문제가 4문제,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3문제가 나온 것도 눈여겨 볼 일입니다.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는 글의 순서 정하기,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삭제가 골고루 하나씩 출제되었습니다. 주제나 요약과 같은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단어 뜻을 나열하여 적당히 감독해해서 주제문을 쉽게 찾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 독해에서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독해의 지문이 다소 길고, 생소한 어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나타내는 핵심문장이 깔끔하게 나오는 지문이라서 문장 구조분석과 유형별 독해 스킬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온 수험생들은 독해에서 감점되는 점수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법은 관계사 문제와 다양한 도치 문제, 분사구문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시험 전 제가 학생들에게 꼭 보고 가야 할 파트로 지목한 파트이지요). 역사적 사실은 완료 용법을 쓰지 않는 포인트는 시제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문법은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자 마자’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 when이 hardly가 문두에 왔을 때 도치된다는 것 뿐 아니라, 오답을 만든다면 시제에서 장난을 친다는 포인트마저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오답 만드는 포인트도 늘 알려드리잖아요). 다만, 빈칸 문제가 아니라 통문장으로 나왔을 때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를 파악하고(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 '전치사 +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와 같이 전반적인 문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그동안 출제되고 있던 문법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인 문법을 숙지했다면, 문장을 볼 때 포인트를 빠르게 간파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휘를 묻는 문제의 어휘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편이라 필수어휘를 중심으로 공부했다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어휘는 제가 생각했던 예상 수준보다는 조금은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take after나 put up with도 고등필수어휘의 가테고리에 들어가는 어휘들이고요. 평소 어휘 기본적인 어휘 학습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지를 묻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해로 인해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점수는 작년보다는 5~10점정도 합격 평

균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